



기점 소악도



반월 작지도



자은백길해수욕장



증도 정동어다리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 신안 4개 선정

2020년 행정안전부의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가운데 신안군의 4개섬이 선정됐다.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걷기 좋은 섬 '반월·박지도', 풍경 좋은 섬 '자은도', 신비의 섬 '기점·소악도', 체험의 섬 '증도' 등 4개 섬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걷기 좋은 섬 반월·박지도는 보랏빛 향기가 피어나는 섬이다. 섬에 들어가는 다리로 보라색, 섬에 핀 꽃도 보라색, 주민들이 사

행안부, 반월·박지도, 기점·소악도 등 섬 여행 메카로 부상
"최근 천사대교·내년 임자대교 개통 관광객 쉽게 찾을 수 있어"

용하는 식기까지 온통 보라 세상이다. 라벤더 향기 맡으며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를 걷는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풍경 좋은 섬으로 선정된 자은도는 치유와 휴양의 섬이다. 이국적이면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가진 '백길해수욕장'과 여인송으로 유명한 분계해수욕장, 섬과 섬을 다리로 연결하여 연속성과 끝없는 발전의 의미를 담은 무한의 다리 등 특색있는 '명품 도보여행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신비의 섬 기점·소악도는 밀

물 때면 섬과 섬을 잇는 노두길에 잠겨 5개의 섬으로 변하며, 12사도 예배당 순례길로 한국의 산티아고라고 불리는 섬이다. 체험의 섬, 증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섬으로, 국내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천일염 생산지인 태평염전과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청정 갯벌을 볼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천사대교 개통과 내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임자대교 개통으로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고 있다."며 "관광객 500만 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회화와 알레고리' 초대전
이인성·조은솔 작가

무안군은 회화 속에 독특한 알레고리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젊은 작가 이인성·조은솔 두 작가를 초대하여 '회화와 알레고리'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 두 번째 초대전으로 7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전시실 2·3관에서 전시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영상은 오는 11일 유튜브(김색창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알레고리'란 여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비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전시에서 조은솔 작가는 회전기구, 가면, 손동작을 비유로 현대사회에서 불안한 소통을 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인성 작가는 오렌지색 점으로 개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관 또는 욕망의 대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작품에 나타난 오렌지색 점이나 가면, 손과 같은 것들을 대신하는 비유로서 관람객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배려와 환대, 윤리, 꿈, 욕망, 좌절, 극복의 힘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며 "관람객이 주제가 되어 열린 해석이 가능한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승우미술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전시해설 모니터설치, 온라인 전시·체험프로그램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중에도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옥수수 재배 농가에 열대저세미나방 약제 공급

선제 대응 피해 확산 방지
300명 이상 농업인 대상

영광군은 지난 6월 26일 관내 영광읍 연성리 사료용 옥수수 재배 포장에서 열대저세미나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300명 이상의 사료

용·식용 옥수수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방제 약제 배부는 7월 3일까지이며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약제를 수령해 가면 된다. 열대저세미나방은 검역관리병해충으로 옥수수의 잎과 중심부를 가해하며 산란량이 많고 세대가 짧아 발생 초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전남 내에는 여수, 무안, 진도, 영암에서 발생했으며 작년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최초 비래하여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열대저세미나방의 형태적 특성은 머리에 'Y'자 모양이 있고 꼬리에 정사각 형태로 돌출된 반점이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지역특화품목 영농기술교육 실시

오는 15일까지

함평군은 이달 15일까지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작목별 전문지도사 23명과 전문가 14명을 초청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농업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각 읍면별 마을시정과 농

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올해 교육은 생산비 절감 기술 등 각 작목별 고품질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총 34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신기술 실용화 방법과 농가별 1:1 현장 컨설팅도 병행 실시된다. 군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교육대상자들을 최대한 분산 배치하고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확보, 교육장 소독 등 당국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매 하절기마다 작목별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겨울철 이상고온 등으로 각종 병해충이 창궐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방활동과 병해충 방제 교육에도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 택시 자율 감차 보상사업 추진

영암군은 자가용자동차의 증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택시 이용자가 급감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총량 산정에 의한 감차 보상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감차 보상사업은 2020년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올해 감차 목표를 15대로 확정했으며, 2024년까지 총 30대를 감차목표로 하고 있다. 감차보상금은 상호읍은 개인 1억 670만원, 법인 4천152만5천원, 영암읍·미암면·신북면·학산면은 개인 7천315만원, 법인 2천975만5

천원, 시종면·군서면은 개인 6천 660만원, 법인 2천975만5천원, 금정면·덕진면·도포면·서호면은 개인 5천885만원, 법인 2천667만5천원 수준으로 선정했다. 군은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0일간 공고 및 접수를 시행 중이며, 대표자 또는 사업자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으로 방문 후 접수 받고 있다. 올해 접수기간 중 감차목표 대수 초과 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